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경계인'이 본 한국의 과학기술자와 인문학자

이필렬(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I.

2004년 봄 황우석 교수가 인간배아를 복제했다는 소식이 온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을 때 한국의 인문학자들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로부터 한국의 인문사회정책 수립을 위임받은 <인문사회연구회>의 학자들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자로 황우석 교수가 초대되었고, 두 사람의 초청토론자와 <인문사회연구회> 구성원들이 다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야말로 한국의 '최고 과학자'와 대표적인 인문학자들의 '만남'이었다. 시점도 주제도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세계최초의 인간배아 복제에 온 사회가 정신이 팔려있던 때, 인문학자들의 '인문적인' 한마디 화두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황교수는 자신의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와 무균돼지 연구에 대해 감성에 호소하는 특유의 설득력 있는 어조로 청중을 '매료'했다. 그의 발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슈퍼맨, 척추마비 가수, 서울대 병원 휠체어 어린이의 간절한 호소도 소개되었다. 그는 내로라하는 인문학자들 앞에서 한국의 '최고과학자'로서 최선을 다한 셈이었다. 다음에 인문학자들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인문적 시각의 날카로운 비판이 감성에 호소하는 자연과학을 단번에 찢러 들어가야 균형이 잡힐 터였다. 그러나 초청토론자를 제외한 다섯 명 인문학자의 토론은 추를 인문학 쪽으로 되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간배아 복제가 지닌 엄청난 인문학 요소들을 한두개 건드리다 미는 꼴이었으니 판정은 자명한 것이었다. 어떤 인문학자는 황교수에게 감격에 겨운 찬사를 바치며 인문학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II.

인간배아를 복제해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일이나 무균돼지를 만들어서 그것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인문학적 논쟁거리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에서는 적어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관점, 정체성 문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같은 학문적으로 심오한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문학자들이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질문도 토론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들이라면 좀 더 깊은 논의를 끄집어내야 하지 않았을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파괴해도 되는가? 이 얼마나 중하고도 매력있는 주제인가? 도청으로 얻은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가보다 훨씬 심오한 주제가 아닌가? 억압과 박해에 대한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테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함과 맞먹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데 도청과 테러에 대해서는 한국의 꽤 많은 인문학자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논의하는 인문학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도청의 결과물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도청을 합법화하고 이는 민주주의 일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청의 내용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도청결과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나온다. 테러에 대해서도 출구 없는 피억압민중 최후의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테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인문학자들의 입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따지는 주제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파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입을 다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인문학자들의 자연과학 이해수준은 그들이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점이, 인간사회와 정신세계를 뒤흔들지도 모를 사건에 대해 그들이 제대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한국사회를 지적인 빈곤 상태로 방치하고, 일순간에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2005년 봄 황교수가 다시 인간배아 복제의 결과물을 들고 나왔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치인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또 한 차례 열광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인문학적 균형감각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한 열광이 걸으로는

어떻게 포장되었든 경제지상주의, 공격적 민족주의, 근대적 가치에 대한 무반성적 추종에서 온 것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이 한국 인문학의 현실이다.

III.

몇 해 전까지 꽤 오랫동안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유행한 일이 있다. 지금은 식상했는지 시들해졌지만, 대신에 이공계 위기가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튀어나오는 유행어가 되었다. 인문학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된 의견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국가와 시민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다. 정신적인 교양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그 사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문학자들의 위기원인에 대한 진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호소력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도 구차스러운 것이었다. 상당수의 인문학자들은 학문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시장가치가 없으면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시장주의의 득세 속에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경박성에서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사람들이 인문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무시하는데도,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대부분 고작 지원을 더 늘리라는 것이었다. 지원을 늘려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좀더 받게 되면, 인문학 쪽으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인문학도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인문학에 대한 경시를 부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이든 애니메이션이든 폭넓은 인문교양,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이는 금방 밀천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 논거였다.

인문학은 여러 학문분야 중에서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이다. 과학기술이 자본에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문학은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16, 17세기 근대과학이 태동할 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인문적 정신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 활동 속에는 성찰적인 이성은 없다. 현대 과학기술은 오직 도구적인 이성에만 따를 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은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이 아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은 물질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질적인 성과물이다. 과학기술은 결국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체와 비슷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수 없듯이, 현대 과학기술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이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다. 소위 순수과학이든 응용과학이든 공학이든 참여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연구 설비들의 도움이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하고 이들 조직과 설비의 운영에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기술은 언제나 많은 돈이 확보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돈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자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가 돈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을 제공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자본의 기대와 다를 바 없다. 자본은 돈을 제공한 댓가로 당연히 기술적인 성취를 기대한다. 그 성취가 자본에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하면 그만큼 많은 결과물을 기대하고, 이 결과물이 다시 많은 돈을 만들어 내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인문학에도 돈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경우와 달리, 물질적인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투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인간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에 수백억원을 지원하면서 수조 또는 수백조의 효과를 내놓으리라는 것과 같은 기대는 추호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활동에 종사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자본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공계의 근원적인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이 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휘두르게 된 이 시대, 그리고 국가가 자본의 작동원리를 배우려 하고 실제 자본의 하위 파트너처럼 되어가는 이 시대에는, 과학기술자들이 처음부터 자본에 붙잡혀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데 위기의 근원이 놓여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이 공계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다. 하나는 자본(+국가)이 그들의 자유를 너무 옥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 대한 자본(+국가)의 대우가 나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자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 둘은 동일한 이야기다. 자본과 대항해서 해방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공계 위기라는 유행어가 불평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안에서도 금방 드러난다. 인문학 위기를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삶의 방향, 정신적 가치, 고유한 학문, 주체적인 학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모든 이야기가 돈으로 귀결된다. 이공계 위기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늘리고 병역특례를 확대하

고 연구비를 늘리고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해법의 핵심이다. 현대 과학기술이 자본에 더욱 심하게 종속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위기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이 종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인문학이 과학기술보다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위기도 이공계 위기보다 훨씬 편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논의될 수 있다. 돈으로 축소되는 협애한 이공계 위기 논의보다 인문학 위기는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세계가 움직여가는 방향에 대한 논의로, 즉 근본적인 논의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인문학에서는 종종 내면의 삶에 대해서, 정신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삶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은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다.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는 한, 삶은 각종 사회현상과 그 사회현상을 실어나르는 각종 과학기술적 산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IV.

현대사회의 외형을 규정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도처에 존재한다. 먹든, 자든, 이동하든, 어느 경우든 과학기술이 동반되지 않는 적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규정되는 것이고, 내적인 영역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내면적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작용은 당연히 인문학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인문학에서 과학기술이 무시된다면 인문학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인간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의 인문학은 절름발이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것일 뿐이다.

인문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인문학이 조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조언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인간 삶에 대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 도처에 존재하는 과학기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과학기술의 성격에 대한 파악은 인간 삶의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인문학에서도 과학기술을 조금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인문학자들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하는 것 같기는 하다. 2004년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란 토론회를 개최한 바로 그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같은 해에 발

간한 연구보고서에 학제간 연구를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학제간 연구는 인문학이 보다 높은 현실적합성을 가지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함으로써 인문학도 자연과학을 이해하고 흡수해야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인문학은 사회과학과는 공유하는 부분이 꽤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자연과학까지도 조망하는 능력이 있어야 현실적합성을 갖는다고 인문학자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가?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어느 정도라도 조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학제간 연구나 자연과학의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인문학자들 중에는 화학이나 물리가 싫어서 인문학을 택한 사람도 많다. 과학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인문학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문학자들 스스로 평가한대로 현실적합성을 지닌 학문을 하기 어렵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현실적합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전쟁은 누구의 잘못에 상관없이 전쟁참가자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식의 논의로는 부족하다.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의 가공할 무기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해야만 전쟁에 관한 인문학자의 이야기가 깊어질 수 있고,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어떤 추상적인 대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보는 태도에서 꽤 잘 드러난다. 여기서 핵무기는 가공할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협상카드로 여겨진다. 그것이 사용되었을 경우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과 논의는 주로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관심과 지식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논의는 훨씬 깊어질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결과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평화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길 것이고, 이 신념의 바탕 위에서 전쟁,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때마다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까지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은 모두 인문학의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탓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믿는 대다수 국민은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결과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 속에서 핵무기의 역할만을 고려하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가 과연 국가위상을 높여주는지도 크게 의문이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를 국가 위상과 자꾸 연결해서 보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객관적인 사실판단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4년 원자력연구소에서 플루토늄과 금속우라늄을 추출했을 때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주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사건이 다루어진 것도 그렇다. 핵무기의 과학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반드시 반대할 것이고, 따라서 플루토늄과 금속 우라늄의 추출도 당연히 비판했을 터인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 민족주의의 기승을 조장한 것이다.

현실적합성의 결여란 우리시대의 '예언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시인들의 생태시(문학)에서도 발견된다. 생태시는 인문학자와 평론가들이 붙이는 이름으로,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지 않은 시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태시로 불리는 시를 쓰는 시인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 시에 대한 평론과 논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태시는 마치 시의 유행처럼 되었다. 그런데 생태시나 이에 관한 글 속에서 정작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생태시가 자연을 소재로 삼은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과학기술을 이용한 개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푸근함이나 나무를 자를 때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는 노래하지만, 나무와 기후변화의 관계는 노래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에서 하늘로 뻗어오르는 대나무를 소재로 삼은 시는 생태시로 평가받을까 모른다. 그러나 이 시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시는 반생태시이다. 만일 이 시를 생태시로 평가하는 인문학자나 평론가가 있다면, 이들은 그들의 글에서 종종 강조되는 생태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서울에서 자라는 대나무는 기후변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예언자'적 시인이라면 서울에서 대나무가 시원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슴아파해야 한다. 시인이 그것도 모르고 서울의 대나무를 노래했다면, 인문학은 그걸 꾸짖고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생태적 감수성이란 습득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온 나이든 농부는 살아오는 가운데 생태적 감수성을 터득했을 것이다. 그는 24절기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한다. 언제 어떤 식물이 싹을 틔우는지, 작물의 북방계선이 어디인지 잘 안다. 대나무는 대전 아래에서만 산다는 것도 안다. 당연히 그는 서울에서 커가는 대나무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 농부 중에도 생태적 감수성이 없는 농부가 있다. 자연의 리듬과 상관없이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농약과 비료와 기계에 의존하는 농업을 하는 농부의 경우 생태적 감수성이 길러질 수 없다.

이러한 농부는 기후변화와 농약의 해로움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생태적 감수성을 얻을 수 있다. 시인과 시에 대해 연구하는 인문학자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고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배워서 알아야만 진정한 생태적 감수성이 습득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시인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전지구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산채로 매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뿐 아니라 인간의 식습관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이해는 원자력과 핵폐기물에 대한 접근에서도 중요하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방사능의 피해는 서서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방사능에 관한 과학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느낄 수 없다. 문인들이 종종 정부에서 돈을 대는 해외 원자력탐방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4년 초 수십 명의 서울대 교수가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건설 하자고 했을 때 인문학 교수들이 소신있게 비판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인문학 교수 중에 진정 방사능의 위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합성이 아주 강한 발언을 할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다.

V.

인문학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만 갖추면 그들의 논의는 매우 풍성해질 수 있다. 원자력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들도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스타 인문학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한국의 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황우석 교수이다. 그는 단지 다른 과학기술자들이 꺼려하는 인간배아 복제에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성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학자는 인간배아 복제에 대해서, 원자력발전 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깊은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하는 인문학자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철학자가 원자력발전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신학자가 미래 에너지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당연히 원자력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이해가 어려운 일인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 그러나 인

문학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현실적합성 있는 발언을 할 작정을 한다면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약간의 어려움이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인문학자들 중에서도 스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인문학도 살고 우리 사회도 균형잡힌 사회가 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을 인문학적 지식 속에 녹여서 현실적합성이 있는 활동을 벌이는 인문학 스타의 출현 - 너무 지나친 기대일까?

보충글

한국 지식인, 정치인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부족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황우석 교수가 즐겨 인용하는 말이다. 자신의 조국애를 웅변해주는 이 말로 그는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사로잡았다.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공동연구자 새튼의 결별 선언으로 다시 불거진 난자기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화와 같은 지지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강한 조국애가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질투나 강대국의 오만으로 치부될 뿐, 합리적인 논의가 설 자리는 없다. 외국의 간섭에 대항하여 더 뚝뚝 뭉치지는 목소리만 커질 뿐이다.

이는 한국의 과학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데, 그렇게 된 데는 지식인과 정치인 같은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국경 없는 과학지식’을 별로 갖추지 못한 그들이 단순하게 놀라고 열광하고 ‘마술’이라고 찬양함으로써 문제를 크게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난자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것이다. 난자채취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상당한 자극과 손상을 주는 일이다. 잘못되면 난소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수명이나 되는 여성이 정말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배아복제에 대한 평가도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다.

배아복제 연구에 커다란 상을 주고 엄청난 액수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권한을 쥔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난자 기증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커다란 포상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나는 그 이유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의 과학문맹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문맹은 과학지식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결여된 것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과학과 관련된 판단은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고 자기는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과학을 많이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조금이라도 과학을 이해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약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서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획기적으로 치료한다는 식의 설명만을 듣고 열광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배아복제 연구가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한 후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핵과 융합하여 배아를 만들고 배아를 키워가다가 파괴하여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고통을 수반하는 난자채취가 여성의 자발성에만 의존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배아의 파괴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불리 열광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사태가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지도층이 배아복제 연구를 뛰어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어느 정도 포상은 하면서도 이토록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만일 정말 윤리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비난의 화살은 연구자에게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더 호된 비난이 정부, 정치인, 언론 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조국애와 뒤섞인 과학문맹 탓이라 할 수 있겠는데,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과학문맹에서 벗어나 사태를 냉정하게 보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인간배아복제의 길을 열어젖힌 이언 윌머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훌륭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